좋은 금융을 부르는 주문, 어부어부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첨단본점,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매곡지점, 동림지점, 동광주지점, 각화지점

광남일보

NEW WORLD
마그골프채 과학에 예술을 더하다
뉴월드 파크골프 ☎ 062)515-9600

광주은행, 8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지방은행 부문…신뢰성 등 로열티 우수 7

신안, 신재생에너지 정책 세계서 인정
최고 권위 '그린월드어워즈' 금상 수상 8

강진 농특산물, 수도권 소비자에 매력 발산
'서울百화점' 전시회서 쇼핑몰 인기제품 선봬 10

'제2의 오타니' 광주일고 김성준, ML 직행
텍사스 레인저스와 130만달러 계약 12

조간 제7841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음력 4월 17일)

광주·전남 발전 공약으로 표심 잡는다

이재명, 인공지능·신재생에너지 육성 청사진 제시
김문수, GTX 확대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계획
이준석, 법인세 자치권·확정기여형 연금제 등 약속

선택! 6·3 대선 D-20
주요 후보 지역공약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광주·전남 지역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4·5·15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맞춤형 대규모 공약을 공개하며 선명한 지역 비전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역 현안 해결에 연계될 수 있는 경제·사회 정책을 통해 지원 의지 등을 밝히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대선 공약을 통해 광주와 전남을 인공지능(AI), 에너지, 농생명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주에는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확충하고, 기존 AI 집적단지 및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와 연계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나주를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신안, 고흥, 여수, 부안, 새만금 등지에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광주와 전남의 공동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이전 지역의 동반 발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직까지 광주·전남에 대한 직접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았지만, 전국 단위 공약 가운데 지역 경제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들이 있다.

'지방 광역권 GTX 구축 추진'이 대표적이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대구경북권), E(충청권), F(광주전남권) 노선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전국 5대 광역권을 통한 GTX 구축 세부계획으로는 가덕신공항-부산-북항-부전-오시리아와 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을 잇는 '부울경 GTX', 청주공항-청주-세종-대전을 연결하는 '대전세종충청 GTX', 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을 잇는 '대구경북 GTX', 나주-광주와 장성-광주-나주-무안공항-목포를 연결하는 '광주전남 GTX'를 제시했다.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펀드 조성,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은 관련 기반이 있는 광주·전남지역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으로 '3·3·3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중산층 세제 지원 등은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19개 부처를 13개로 재편하는 정부 개편안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국가 운영체계를 약속했다.

광주·전남 지역과 관련해선 지방정부에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해 지역 맞춤형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정책으로는 최대 5000만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연금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광주·전남의 청년 유출 문제와 지역 내 경제 자립 기반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별로 공약의 무게중심과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광주·전남의 미래산업 육성, 교통·의료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며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민들의 선택을 가를 주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3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장미원에 설치된 투표 홍보 포토존에서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5·18기념재단 인식조사…성인 10명 중 7명 '필요' 응답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5·18기념재단이 학술연구·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5·18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7.4%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했다. ▶관련기사 2·5·11면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68.0%, 여성의 경우 74.8%가 5·18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응답자는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20대 응답자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40대의 경우 80.3%가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20대 62.5%, 70세 이상 65.4%, 60대 68.4%, 30대 70.3%, 50대 79.3%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8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74.2%), 대전·세종·충청(71.9%), 인천·경기(70.2%) 순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62.3%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5·18과 관련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5·18 진실규명'이 32.8%로 가장 높았고, '왜곡과 폄훼 방지'(20.0%), '5·18정신 헌법 전문 반영'(19.8%)이 그 뒤를 이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표본조사로 진행된 특성을 고려해 직접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다소 무리한 해석이지만, 시민 대다수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 설립

산자부 공모 선정…빛그린산단에 최첨단 장비 등 구축

광주시가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을 위한 '전주기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의 하나인 '미래자동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35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빛그린국가산단에 '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를 설립, 최첨단 부품 시험·평가·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미래차 특화 전장부품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장비 도입, 첨단화·고도화된 고효율 부품의 기술지원 및 개발 시스템 구축,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48V(볼트) 체계의 고성능 전기차, 최첨단 센서 탑재 인공지능(AI) 융합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 고효율 전장부품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면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역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개발센터가 설립되면 기존 빛그린산단 내 구축된 166종의 친환경자동차 개발장비와 인공지능(AI) 기반 대형드라이빙시뮬레이터와 연계,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부품 설계·개발부터 생산·인증까지 '전주기 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 미래차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국비 공모사업 유치는 미래차 부품개발을 선도할 핵심기반을 광주에 구축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역기업들이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